

* 벤처가까이에서 벤처와 함께 하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벤처정신 담긴 혁신아이템, How Much?!

필름잇다우 최희성 대표

'국내 최초 아이디어 경매쇼'를 표방하며 벤처기업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제품을 선보이는 TV프로그램이 화제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SBS에서 방송되는 '아이디어 하우머치(tv.sbs.co.kr/howmuch)'가 바로 그것. 경매라는 역동적인 포맷을 통해 참신한 제품에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아이디어 하우머치를 제작·연출하고 있는 '필름잇다우' 최희성 대표를 만나봤다. 세계 1위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이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갖고, 벤처기술 홍보와 이미지제고를 위해 뛰고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진행·정리 편집실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어떤 취지의 프로그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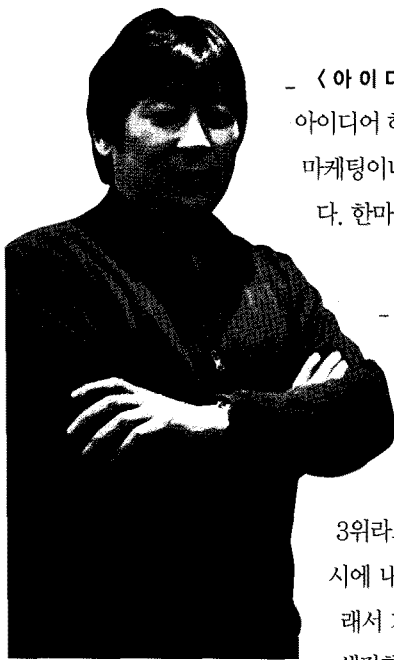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원이라는 기획의도로 시작됐다. 방송을 통해 마케팅이나 홍보역량이 부족해 사장위기에 처한 특허기술과 휴면특허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돕고, 국민과 공감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바다 속 보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프로그램이랄까.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인물다큐나 제품 개발 과정, 혹은 단순한 홍보에 그쳤던 일반적인 기업소재 프로그램과는 획기적으로 다르다. 프로그램 제작의 계기는 무엇인가?

5년 전 중소기업청의 의뢰로 우수한 중소기업상품을 소개하는 '출발모닝와이드-대박정보'라는 코너를 기획·제작 했었다. 이때 현장에서 영세 개발자들과 접촉하면서 정말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마케팅과 자본금이 없어 그대로 사장시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됐다. 우리나라 특허기술 보유가 세계 3위라고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상품들과 기술들만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에 내가 제작하던 프로그램 외에 공중파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상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전무' 그 자체였다. 그래서 기업 제품 관련 방송은 '딱딱하다',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참신한 소재를 참신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했다. '재미'와 '유익'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가면서 판로와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영세 개발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결심하게 됐다.

요즘 벤처기업인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SBS 아이디어 하우머치 홈페이지(tv.sbs.co.kr/howmuch)를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과 직접 제작진의 이메일을 통해 기술설명서를 받는다. 이후 다방면의 전문가와 제작진이 협의를 거쳐 방송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 후 제작진이 직접 답사 후 시제품 혹은 기술 시연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대학 연구소 혹은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검증을 거친 후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 기술평가를 받게 되고 녹화 전 제작진과 엔젤투자자간의 담합여부까지 신용전문기관을 통해 확인받은 후 방송에 나가게 된다.





_ 프로그램 제작 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 고민(?)이 늘 머릿속에 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엔젤투자자, 창투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가 처음 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작진이 해결해야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과 그에 따른 전달 방법이다. 초기에는 아이디어 하우머치가 공중파에서는 유일무이한 기술거래 프로그램이니 만큼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생활밀착형 혹은 실용신안수준의 가벼운 아이디어 개발품을 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방송 6개월이 넘어가고, 고정 시청자 층이 생기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아이템의 선정 범위를 IT·BT·신소재 등 전문적인 원천기술로 확장하게 됐다. 아이템의 종류가 확장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소재이니만큼 시청자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간혹 받게 되는 연출 의혹이다.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실제로 책임연출, PD, 작가를 포함한 전 스태프 모두가 녹화당일 까지도 누가 어떻게 얼마에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100% 리얼한 현장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 사실성에 대한 비주얼을 연구하고 있다.

_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낙찰자와 개발자는 녹화 후 MOU를 맺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하고, 대기업 납품 성사 등 녹화당일 낙찰보다 방송 후 더 큰 성과가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개발자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다.

_ 2009년 <아이디어 하우머치>의 다음 행보는?

<아이디어 하우머치>는 밤 9시대를 목표로 제작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허청 지원으로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만 있는 개발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며 보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세계 일등 기술을 발굴할 수 있으면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하우머치>를 아껴주시고 참여주시는 분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언제든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